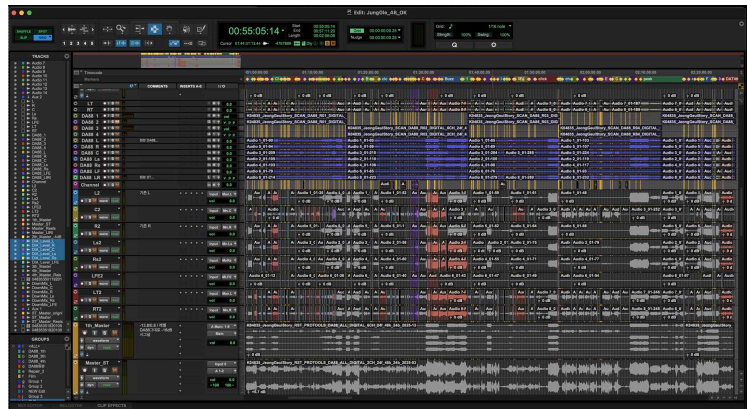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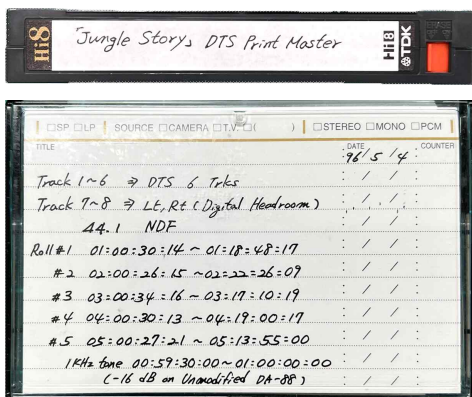


보도사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한국영상자료원-부산국제영화제, AI 시대 '한국영화 리부팅' 포럼 개최

오는 19일, <리부팅 한국영화 RE:BOOTING KOREAN CINEMA> 개최
사운드·디지털에셋·AI를 통해 한국영화의 미래 정체성 모색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포럼비프 프로그램, 사전 신청 없이 무료 참여 가능



<정글스토리> DTS 원본 사운드 DA88 테이프와 디지털 복원 프로툴 세션 이미지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오는 9월 19일 오전 10시, 부산 영상산업센터 컨퍼런스홀에서 부산영화제와 공동으로 FORUM BIFF <리부팅 한국영화 Re:Booting Korean Cinema>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영화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새로운 제작 환경을 점검하고,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세계영화 시장에서는 고전영화 리마스터링과 재개봉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국내에서도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등도 4K 화질로 복원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영화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물이 아니라, 기술과 해석을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살아나는 문화 자산임을 보여준다. 이번 포럼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 보존과 복원, 제작과 창작을 아우르는 '한국영화 리부팅'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은 몰입형 사운드 제작 방향, 디지털 에셋과 AI 도입, 제작 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홍준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양한 관람 환경과 기술 변화 속에서 영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복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AI 시대 원본성과 자료 공유라는 화두 속에서 과거 영화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 영화 환경을 준비하는 데 있어 영상자료원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1부 ‘리사운딩 한국영화(Re:Sounding Korean Cinema)’에서는 극장과 스트리밍 플랫폼 등 다양한 상영 환경에서의 사운드 변화와 한국영화 사운드 복원을 다룬다. OTT의 부상으로 관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각 환경에서의 사운드 경험과 믹싱 전략의 차이를 살펴본다. 필름 사운드 복원의 기술적 과제와 현재의 복원 방식도 함께 다룬다. 사회는 박세호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프로그래머가 맡고, 김병인 넷플릭스 사운드 매니저, 박민영 한국영상자료원 사운드 복원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2부 ‘리이미징 한국영화(Re:Imaging Korean Cinema)’에서는 디지털 에셋과 AI 기술이 영화 제작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다룬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에셋 플랫폼 ‘I.AM’의 운용 사례를 통해 한국적 가치와 정체성을 지닌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또한 AI 기술이 접목된 3D 자연환경 에셋 제작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는 정찬철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맡고, 정민재 노스니트공대 엔터테인먼트 VFX 기술팀장, 유태경 중앙대학교 예술공학대학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3부 ‘리프레이밍 한국영화(Re:Framing Korean Cinema)’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제작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공유하며, 21세기 ‘한국영화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영화가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어떤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사회는 김승경 한국영상자료원 수집팀 연구원이 맡으며,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 <카지노>, <파인:촌뜨기들> 등을 연출한 강운성 감독, 1세대 VFX 슈퍼바이저이자 현재 VFX 스튜디오 웨스트월드를 이끌고 있는 손승현 대표, 프로듀서이자 서일대학교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김익상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본 포럼은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포럼 비프(Forum BIFF)의 일환으로 마련되며, 한국영상자료원과 부산국제영화제와 공동주최한다. SOUND, AI, VFX 등 영화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언론사 취재

- 사전 취재를 신청하신 기자님들은 별도의 좌석을 지정해 드립니다.
-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사전에 신청한 언론사만 가능하며, 개인 촬영은 불가합니다.
- 취재 및 촬영문의 : 한국영상자료원 전략기획팀 여은정
02-3153-2064 /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한국영상자료원 - 부산국제영화제 포럼 비프 2025

리부팅 한국영화(Re:Booting Korean Cinema)

○ 포럼개요

- 일시 2025년 9월 19일(금) 10:00~12:30
- 장소 부산영상산업센터 컨퍼런스 홀 (11층)
- 주최 (사)부산국제영화제
- 공동주최 한국영상자료원
- 참가료 무료

○ 포럼소개 한국영상자료원 수집팀장 이주영

○ 개최사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김홍준

○ [1부] 리사운딩 한국영화(Re:Sounding Korean Cinema)

- 사회 : 박세호(한국영상자료원 프로그램팀 프로그래머)

10:15~10:35	영화관 중심의 몰입형 사운드에서 OTT 스트리밍으로 이어지는 기술 전개와 그 의미	김병인 (넷플릭스 사운드 매니저)
10:35~10:55	한국영화 사운드 복원의 도전과 과제	박민영 (한국영상자료원 디지털복원팀 사운드 복원 스페셜리스트)

○ [2부] 리이미징 한국영화(Re:Imaging Korean Cinema)

- 사회 : 정찬철(국립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10:55~11:15	한국적 디지털 에셋 수집과 활용에 대한 기술적 논의	정민재 (노느니특공대엔터테인먼트 기술팀장)
11:15~11:35	리이미징 한국 자연 - 한국 자생 수목 고정밀 3D 에셋 제작	유태경 (중앙대학교 예술공학대학 교수)

○ [3부] 리프레이밍 한국영화(Re:Framing Korean Cinema)

- 사회 : 김승경(한국영상자료원 수집팀 연구원)

11:45~12:30	[토론] 21세기 한국영화다움	강윤성(감독) 손승현(웨스트월드 대표) 김익상(프로듀서, 서일대학교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교수)
-------------	------------------	---